

기고

### 화재없는 청명한식으로 소중한 산림을 보호합시다

김기수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장



봄철은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 강한바람등 계절적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으며 기온상승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로 화기취급에 방심과 무관심이 큰 재앙을 일으킵니다. 청명한 농사 준비 24절기 중 5번째로 하늘이 맑아진다는 뜻이 있고 청명에 날씨가 좋으면 그해 농사가 잘된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식은 설·단오·추석과 4대 명절로, 일정 기간 불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고 성묘하는 풍습으로 입산객이 증가하는 기간입니다.이렇듯 청명·한식 기간을 재밌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명·한식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을 살펴보고겠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531건이며, 부주의가 1,319건으로 86%차지하고, 세부 원인별로 쓰레기 소각이 399건 30%로 가장 많으며 담배꽂초, 논 입태우기, 불씨 불꽃화원방치 순으로 되었습니다. 농산물 소각 등 논두렁과 밭두렁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91건으로, 총 11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재산 피해도 약 1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97%(711건)가 부주의 및 실수에 의한 화재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렇듯 봄철 건조한 날씨 속 강한 바람이 부는 4월에는 부주의에 의한·밭두렁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절대 소각하지 말아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것이며,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화목난방기의 타고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청명·한식(4월4-5일) 기간 중 식목 활동, 상춘객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각 소방서에서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합니다.산림 인접 마을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화재 안전 컨설팅, 대형산불 등 화재 대비 예방 순찰 및 소방 장비 사전점검, 신속한 현장 대응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하며 주요 식목 장소, 대형화재 우려 지역 등 소방력 근접 배치로 신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과 농사 시작의 계절을 맞아 산불로부터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중한 산림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안전한 청명·한식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럼

### 그릇 같은 인생

정기연 전 영암 신복초등학교 교장



그릇은 인간이 사용하려고 만든 도구지만 그 쓰임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빈 그릇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이라 하며, 그것을 만든 재질에 따라 질그릇 놋그릇 사기그릇이란 한다.

이병철 회장은 사람을 채용하면서 총평을 그릇에 비유해 말했다 한다. 비록 외모는 볼품이 없고 출신 학교도 변변치 못하지만,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 큰 그릇에 기용해야 할 사람과 작은 그릇에 기용할 사람을 분별했다 한다. 작은 그릇 인품의 사람이 취업하여 큰 그릇의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며 큰 그릇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작은 그릇의 일을 맡기면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한다.

노자는 대기만성(大器晚成)이라 했는데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군자불기가 폭넓은 다양성을 뜻한다면 대기만성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릇의 크기를 말한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큰 그릇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을 갈고 닦아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군자불기와 대기만성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

흔히 따지자면 그릇의 용도가 무엇인지 무슨 재질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비싼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릇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그릇이라도 추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더러운 그릇일 뿐이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그릇을 만드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뛰어난 장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만든 명품 그릇들이 있었다. 고려청자 조선백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사용하던 막사발도 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그릇들은 만들었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도 군자불기와 대기만성의 명품들로 키우면 좋겠다.

찬장 안에는 수많은 그릇이 있다. 모양에 따라 크고 작은 그릇, 재질에

따라 금 그릇 은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다. 이러한 그릇은 연중 주인의 선택에 따라 쓰이고 있으며 날마다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일 년을 통해 한 번도 쓰지 않고 보관된 그릇이 있다. 그릇이 쓰인다는 것은 주인의 필요한 선택에 따라 쓰이고 있으며 선택되지 못한 그릇은 그릇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다.

소중한 그릇은 재질과 모양과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인의 쓰임을 받는 그릇이냐가 중요하다. 날마다 주인으로부터 선택받는 그릇은 항상 깨끗하고 속이 비어있으며 자주 쓰임에 불평하지 않는다. 비록 못 생기고 작고 재질이 낮은 질그릇 일지라도 쓰임을 많이 받는 그릇은 주인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는 찬장 안의 그릇처럼 잘난 사람 못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재산이 많고 적은 사람, 건강한 사람, 허약한 사람 등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이처럼 인생은 물질, 재능, 시간, 건강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선하고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이 사회를 위해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며 소유보다는 쓰임이 더 중요하다. 쓰임 받지 못하는 금 그릇보다는 많이 쓰임 받는 질그릇이 더 우대받는다. 사람이 사는 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며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하며 고생하는 것은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임을 알고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쓰임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면서 소중하게 쓰임 받는 인생 그릇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로부터 쓰임 받아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일을 하여 자랑스럽고 보람찬 실적을 남긴 인생이 되었으면 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mailto:ihonam@naver.com)

기고

### 건설현장 불법행위, 해결책은?

양성빈 보성경찰서 경무과순경



업체, 정부, 노동자 및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하며, 그들의 의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최근 건설업에서의 안전 및 환경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규정 위반, 노동법 위반, 그리고 환경 파괴가 주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환경, 노동법 등의 준수를 감시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건설 종사자들과 관련 업체들에는 환경 보호, 안전규정 준수,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불법 행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과 근로자 참여가 필요하다. 건설

앞으로도 건설업의 안전과 환경 보호는 계속해서 주목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감시와 규제의 강화, 교육과 인식의 개선, 그리고 협력과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설 산업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호남신문 [i-honam.com](http://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우문로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